

2017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17.11.24(금) 14:00~15:0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차별화 전략 제고

- 연합뉴스의 풍부한 취재인력과 생산된 뉴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함. 특히 연합뉴스의 지방 및 해외 주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타 보도매체보다 연합뉴스TV의 강점이 살아날 것임. 예를 들면 포항 지진상황 보도 시 포항 또는 인근 연합뉴스 주재원을 좀 더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신현택 부위원장)
- 보도 내용이 시사문제 특히 정치, 사건 사고 위주로 보도되고 있으나 연합뉴스의 풍부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거리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경제, 문화, 스포츠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특히 오전편성-간밤의 국내외 핫한 뉴스보도) 심층, 다양한 내용 보도하면 시청자 다변화를 통해 시청률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신현택 부위원장)
- 스트레이트성 속보와 더불어 깊이 있는 박스 기사, 실생활에 밀접한 기사 등도 더 필요하다고 보임. 가령 경제부문 기사의 경우, 출입처의 발표를 전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보다 발품을 파는 친절한 뉴스 생산이 시청자들에게 더욱 친절한 연합뉴스TV를 각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여겨짐(주철환 위원)
- 남자 앵커들이 대부분 주니어들로 채워져 있는 부분도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신선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주 시청자 층을 감안하면 조금 더 노련한 진행을 하는 중량감 있는 앵커의 발탁이 뉴스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이같은 현상은 특히 패널들과의 대담에서 두드러지는데, 짜여진 질문 대신, 상황과 패널들의 입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행자 발굴이 요구됨(주철환 위원)

▲ 자막처리, 부적절 표현 등 주의 필요

- 불필요한 속보자막이 여전히 남발되는 경향이 있음. 자막의 개수도 그렇지만 활자 크기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듯. 자막 길이가 너무 길어서 활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불필요한 조사 등을 과감히 생략해주면 시각적인 효과는 물론 전달력 면에서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주철환 위원)
- 사회 기사 중 구속영장 청구내용에 관해 지난 번 김관진 장관이 구속될 때, 앵커멘트를 "김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는데 구속 영장을 피의자에게 청구하는 일은 바른 표현이 아님. 김 장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음. 전

병헌 정무수석에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에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었음
(이재경 위원)

- 뉴스전문채널로서 자막은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국민의 문자생활을 선도하고 우리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천 년동안 우리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한자음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간결하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음은 사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데 필수적이라고 봄(박동민 위원)
- 강조부호(작은따옴표)와 인용부호(큰따옴표)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음. 강조부호를 써야 할 곳에 인용부호가 사용되었음. (ex. "호소력" "허탈")(박동민 위원)

▲ 기타 의견

- 포토뉴스는 간단하게 하루를 스케치할 수 있어 좋은 포맷임. 그러데 바로 직전에 기자뉴스로 나온 후에 포토뉴스로 중첩되는 경우가 있음. 뉴스의 중요도가 높은 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신이 두 번 반복될 때는 뉴스가 빈약해 보이는 단점이 있어 뉴스 중요도와 앞의 뉴스 순서의 조정이 필요함(박정숙 위원)
- 문화, 체육, 장애인 등 소수자 관련해서도 더 많은 관심 기우려 주시기를 바람. 자막에도 더 많은 신경 부탁 (월말 에서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에는 특히 주의요함)(김용직 위원)
- 뉴스앱 스튜디오 연결과 구성은 참신하다. 특히 스튜디오에서 뉴스앱 스튜디오로 넘어갈때 오렌지색은 상큼함을 주었음. 스튜디오패널과 글자크기가 다른 뉴스들이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킴. 단, 스튜디오 연결시 때에 따라 음악소리가 커져서 앵커의 소리가 묻히는 경우가 있고, 가끔 터치스크린이 작동하지 않는 테크니컬한 문제점으로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박정숙 위원)

4) 긍정적 평가

-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은 좋아 보임. 그리고 11월 14일 중증장애인 일자리 관련 기사는 따뜻한 뉴스로 보기 좋았음(김용직 위원)
- 전체적으로 연합뉴스 TV 보도는 안정감이 크게 좋아졌으며, 기자들 읽기도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고 느낌(이재경 위원)
- 전반적으로 차분한 보도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트럼프 미국대통령 방문시 실시간으로 일정을 소화하면서, 코멘테이터와 함께 상황설명이 이루어져 뉴스전달과 이해도를 높였음(박정숙 위원)
- . (끝)